

IIRI Online Series

미중경쟁의 역설: 중동의 데탕트와 동북아에의 함의

한 인택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객원연구위원

2023. 6. 20

미중경쟁의 역설: 중동의 데탕트와 동북아에의 함의



한 인택 |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신냉전과 미중경쟁으로 지역정세가 불안정하여지고 있다.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으며, 인도-태평양에서는 대만해협, 남중국해,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아프리카 수단에서도 내전이 격화되고 있다.

한편 갈등과 분쟁의 땅으로 인식되어온 중동에서는 그와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테러가 급격히 감소하여 최근에는 중동 테러보다 미국의 총기사건이 더 많이 보도되고 있다. 이스라엘과 UAE, 이스라엘과 모로코, 이스라엘과 바레인, 그리고 최근에는 이스라엘과 수단이 관계를 정상화하였다. 또 지난 3월 초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외교관계를 복원하기로 하였고, 양국의 대리전 성격을 지녔던 예멘 내전의 종식도 기대되고 있다. 지난달에는 아랍연맹으로부터 퇴출되었던 시리아가 12년 만에 아랍연맹으로 복귀하여 시리아와 일부 아랍국가 간의 관계도 회복되고 있고, 시리아 내전도 진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스라엘-사우디아라비아의 국교정상화도 현재 협의되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 긴장과 분쟁이 증가하는 동안 중동에서는 어떻게 평화와 안정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가? 그리고 중동의 경험이 동북아에 주는 함의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중동 국가들, 특히 이스라엘,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란의 전략

적 사고와 위협인식의 변화, 그리고 중동에서 전개되고 있는 미중경쟁의 동학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전략적 사고와 위협인식의 전환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은 중동, 특히 이스라엘과 산유국의 안전을 미국의 핵심적인 이익으로 간주하고 수호하여 왔다. ‘카터 독트린’이라고 알려진 이러한 입장이 오바마 대통령 이후에는 변화되기 시작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란과 핵합의를 체결하고 ‘아시아로 회귀(Pivot to Asia)’를 추진하였다. 이로 인해 미국으로부터 방기(abandonment)되었다고 느끼는 이스라엘과 아랍국가들을 달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첫 해외방문국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선택하고, 아랍국가들이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를 맺도록 설득하였다. 트럼프의 결정으로 미국은 이란 핵 합의에서도 탈퇴하였고,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혼란 속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하여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미국의 능력과 용의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켰고, 이란 핵 합의의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UAE, 모로코, 바레인이 이스라엘과 관계정상화에 합의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들의 결정을 암묵적으로 지지한 배경에는 미국에 대해 달라진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앞으로 미국의 참여가 없거나 역할이 축소된 상황에서 이란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역내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한편,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이 2019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생산시설에 대해, 2022년에는 UAE의 석유생산시설과 군사시설에 대해 여러 차례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하였는데 미국의 무기로는 미사일과 드론을 다 요격할 수도 없어서 피해가 발생하였다. 또 그동안 사우디아라비아가 보호자로 의존했던 미국이 공격자를 응징하지도 않았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과 외교관계를 복원하게 된 데에도 물론 중국의 중재도 중요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 스스로도 지금까지의 방식을 통해서 이란의 위협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제 미국의 보호에만 의존할 수 없고, 사우디아라비아 스스로가 외교적

으로 해결하거나 아니면 사우디아라비아도 핵 능력을 구축함으로써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됐다.

아직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과 관계정상화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정상화를 추진한다면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원자력 관련한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가 핵 능력을 갖추는 것을 암묵적으로라도 허용한다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의 위협에 외교적 방식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이란이 어떤 이유로 중국의 중재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와 외교적 관계를 복원하기로 결정하였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확실한 건 오랜 제재로 인하여 이란의 경제는 피폐되었으며 히잡 시위에서 나타나듯이 이란 국민의 불만이 체제의 안정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고조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 정부는 대외적 갈등보다는 경제적, 외교적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에 중국의 중재와 경제적, 외교적 지원을 받아들였을 수 있다.

미중경쟁과 지역정세

중동은 20년 전, 아니 10년 전만 하더라도 미·중 간의 경쟁을 상상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었다. 중국이 아직 부상하지 않은 탓도 있지만 중동이 미국의 독무대였기 때문이다. 중동에서 미중경쟁이란 불과 몇 년 안된 현상이다.

미중경쟁은 갈등을 초래한다는 것이 기존의 관념인데, 중동이 미국의 독무대에서 미중이 경쟁하는 지역으로 변모한 이후 나타난 새롭고 흥미로운 현상은 미국과 중국이 마치 경쟁이라고 할 만큼 적극적으로 역내 국가 간 관계를 개선시켜서 긴장완화를 촉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지난 3월달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대표를 베이징으로 초청하여 2016년 이후 단절되었던 양국의 외교관계를 복원하도록 중재하였다. 이어서 4월달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외교장관이 베이징에서 만나 ‘중동의 안보, 안정, 번영을 이루는 상호신뢰 구축과 협력의 활성화’를 다짐하

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한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그보다 앞서서 이스라엘과 아랍국가 간 아브라함 협정의 체결을 성사시켰고,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아브라함 협정의 확대하는 방안,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동북아에의 함의

미중경쟁이 지역의 긴장완화를 낳는 중동의 경험을 동북아에 이식할 수 있을까? 중동과 동북아는 다른 점이 많지만, 안보위협이나 외교관계로 보면 적지 않은 공통성이 존재한다. 양 지역에 유사한 안보위협(이란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존재하며, 같이 위협을 받지만 서로 잘 협력하지 않는 국가들도 존재한다. 사우디아라비아/UAE와 이스라엘, 그리고 한국과 일본이 그에 해당하는데, 미국의 보호에 의존한다는 추가적인 공통성도 있다. 따라서 중동의 경험이 동북아에서도 유의미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미국과 중국이 동북아에서 화해와 중재를 시도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으로 먼저 동북아 역내 국가들이 중동 국가처럼 전략적 사고와 위협인식을 업데이트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경험하면서 기존 외교·안보 전략에 대해 재검토하였고,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파격적인 정책--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 이란과의 관계개선, 중국과 협력강화, 러시아에 대한 지지, 그리고 어쩌면 핵 능력 구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만약 중동 국가의 사고와 인식의 전환이 없었다면, 아무리 미국이나 중국이 중동에서 화해와 중재를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성과가 없을 수 있었다. 아니, 성과가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미중이 시도 자체를 안 할 수 있었다.

/끝/

저자 소개

한인택 박사는 현재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다. 제7대 제주 평화연구원장과 제주 포럼 집행위원장을 지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와 동(同) 대학원 외교학과를 졸업한 후 UC 버클리(Berkeley) 정치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UC 데이비스(Davis), 워싱턴대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 이화여자대학교 등에서 강의하고, 안보협력, 핵전략, 비정부외교에 관하여 연구하여 왔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과 중동의 주요 인사 간 연례대화인 한-중동 협력포럼을 기획하였고, 중동지역 사이버공격, 중동비핵지대, 사우디-이란관계 등에 관하여 저술하였다. (Email: intaek.han@gmail.com)

